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돕는다

‘2025 공공기관-여성기업 매칭데이’ 전주서 개최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공공기관-여성기업 매칭데이’가 3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셀레니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북지방조달청, 그리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매칭데이는 전북 지역 여성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국민연금공단, 전북특별자치도 등 11개 공공기관과 건설·제조·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여성기업 22개사가

가 참여해 활발한 교류의 장을 이뤘다. 행사는 △차세대 나라장터 활용 교육 △여성기업 공공구매제도 안내 △공공기관-여성기업 간 구매상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차세대 나라장터 교육에서는 조달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여성기업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으며, 공공구매제도 설명을 통해 여성기업 제품 구매의 필요성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사전 매칭 외에도 자유로운 네트워킹 시간을 마련해 기관 관계자와 여성기업 대표들이 현장의 어려움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공공기관-여성기업 매칭데이’가 3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셀레니움에서 열렸다.

전북중기청 전세희 청장은 “이번 매칭데이는 전북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인 여성기업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여성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구본부, 익산 앵커기업 현장 방문… 혁신 협력 등 모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30일 익산 소재 혁신기업(주)하림산업을 방문해 전북특구 육성자문단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특구 육성자문단’은 2018년 발족한 지역혁신 네트워크로, 전북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아젠다 발굴, 기술 교류,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업화 지원기관 등 총 3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네트워크 행사는 익산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기관과 앵커기업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신사업 아이템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8개 혁신기관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해(주)하림산업의 R&D 추진 현황과 지역 상생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기관 간 협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주)하림산업은 익산시 및 전북비오융합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 중인 ‘익산형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과 지역 기반 디지털 전환 및 물류 자동화 전략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물류센터의 자동화 설비를 직접 견학하며, 향후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전북특구본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익산 지역 앵커기업과 혁신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신사업 아이템 발굴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 전북 혁신에 힘을 계획한다. /오상근 기자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상생소비 이벤트, 최대 20억 혜택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 카드결제, 복권·환급으로 돌려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국가 단위 소비촉진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의 일환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상생소비 복권 이벤트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를 촉진해 내수 회복을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소비복권은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로 소비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 기회를 제공한다. 누적 5만원 소비 시 1장, 최대 50만원까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총 5,000명으로, 1등 20명(각 2,000만원), 2등 40명(각

200만원), 3등 1,140명(각 100만원), 4등 3,800명(각 10만원)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특히 비수도권 소비자를 우선 대상으로 1등 당첨자를 선정하며, 수도권 거주자도 비수도권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원 이상 카드 결제 시 1등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응모는 상생페이백.k에서 한 번만 신청하면 행사 기간 중 소비 실적에 따라 자동 처리된다. 당첨 결과는 12월 초 공개, 당첨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는 지역별로 누적 결제의 5~15%를 환급받는다.

수도권 8%, 비수도권 10%, 특별재난·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5%이며, 환급 한도는 수도권 1만원, 비수도권 1만5천원, 특별지역 2만원이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에서 14만원 결제 시 14,000원이 환급되고, 특별지역 13만8,334원 결제 시 20,000원 환급된다. 다만, 상생페이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 이대진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소비복권과 환급행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한우 먹는 날’ 맞아 최대 40% 할인행사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북 하나로마트 34개 매장 참여

전북농협은 ‘한우 먹는 날’(11월 1일)을 기념해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2025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품질 좋은 한우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전북 지역 농협하나로마트 및 축산물판매장 34개소가 참여한다. 할인 품목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등심, 양지, 불고기 등 국거리용 한우 등으로 구성됐다.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한 등급의 한우가 매장별 특성

에 따라 판매되며, 등심은 최대 30%, 불고기·국거리는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세일은 전국 농·축협 및 계열사 축산물판매장(하나로마트)에서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진행된다. 참여 매장은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nhagroup.com) 및 한우자조금 홈페이지(hanwooboar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환 전북농협 본부장은 “이번 한우 먹는 날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가족과 함께 질 좋은 한우를 부담 없



이 즐기시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축산농가의 정성과 따옴으로 길러진 한우가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비 촉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이 전기안전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전기안전 강화 위해 손잡았다

전기안전공사-한국소비자원, 사례 공유 등 캠페인 공동 추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이 전기안전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양 기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전기안전 관련 위해·결함 정보 및 사고 정보의 상호 교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사례의 분석결과 공유 △소비자 대상 전기안전 캠페인 공동 추진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나 갑작 등 소비자 안전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공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유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전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를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기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공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소비자원과의 협력은 국민 생활 속 전기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스마트공장 450개 구축… AI 기반 제조혁신 본격화

중기부, ‘2026년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2026년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공장 450개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고는 지난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의 후속 조치로, 내년도 사업 추진 일정과 지원계획을 구체화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총 12개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사업으로, 올해 대비 가장 큰 변화는 AI 관련 지원사업의 대폭 확대다. 중기부는 AI를 접목해 불량 검출, 실시간 공정 제어 등 공정 의사결정이 자율화되는 ‘AI 공장’ 구축을 집중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자율형 공장(30개)

△제조 AI 특화 스마트공장(400개) △대·중소 상생형 AI 트랙(20개) 등 총 450개 내외의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AI 전환(AX) 기획지원 등 전문가 컨설팅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AI 도입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인력난 완화 등 업종별 공통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AI 솔루션·장비 개발 프로그램이 새롭게 신설됐다. 중기부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을 통해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빠르게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한 AI와 디지털 전환 기술 핵심공정 최적화 등 스마트공장 관련 연구개발(R&D) 사업도 확대된다. 특히 우수한 R&D 성과물이 현장 스마트공장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성과 확산 트랙이 운영된다. /오상근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